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전주에 모여

도교육청,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관광호텔 꽃심서 '2023 협의회 워크숍' 국가인권위서 개발 중인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 공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인권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28~29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 관광호텔 꽃심에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22개 기관에서 58명이 참가, 인권보호 기능이 도입된 후 10여 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회회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도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첫날에는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 10년 평가'와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 10년 평가'에서는 정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광주광역시 권순조 조사관, 전주시 서보훈 인권옹호관, 경기도교

육청 이동주 인권옹호관 등이 각각 발표를 갖는다.

이어 '지자체 인권구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 토론에서는 경기도 안채리 인권조사관이 '지자체 직장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필훈 조사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뤄진다.

둘째 날에는 '지자체 인권침해 사건조사 매뉴얼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전주향교, 전동성당, 경기전 등 전주 지역 문화 탐방도 계획돼 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인권보호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라며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인권보호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의 인권보호 업무 담당자들 간 정책교류와 상호협력력을 위해 2017년 구성, 전북도교육청이 2023년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자외선 등서 높은 편광 효율

전북대 정세은 석사과정생 '초박형 CNT 편광필름' 개발



전북대학교 이승희 교수 연구팀의 정세은 석사과정생이 휘어지는 편광필름을 개발해 화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전북대 이승희 교수팀과 KIST 전북분원 구본철 박사팀이 추진한 전북대-KIST 학연 교수 및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은 정세은 석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재료공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IF=8.856' 최신호에 게재됐다.

편광판을 대체 할 수 있는 자외선 영역 편광자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아이오딘(Iodine, 요오드) 기반의 유기 편광자(자연광을 직선 편광으로 바꾸는 장치)는 고분자 필름을 이용하는 탓에 열과 습기에 취약하고, 수십 마이크론의 두께를 가지며 가시광선 영역만 편광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금속 나노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편광 효과를 얻는 광학 소자인 '와이어 그리드' 편광자는 내열성과 투과율이 좋고, 얇게 만들 수 있지만 금속이 나노 패턴이 되어 있는 구조로 제작돼 대면적 생산에 제한이 있고 높은 비용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를 편광자로 응용하는 이전의 연구들은 고분자 매트릭스를 이용해 편광자를 제작하거나 수직으로 성장한 탄소나노튜브를 기판에 전사하는 방식인 탓에 얇은 두께나 대형 편광자로는 제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탄소나노튜브의 길이를 수백 나노미터 크기로 제어하고, 순수 황산보다 산성이 강한 초강산 용매에 분산시켜 액정상의 분산액을 제조한 뒤 전단력을 가해 초박형 필름을 구현했다.

공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이 필름은 탄소나노튜브의 물질 방향에 따라 균일하지 않은 성질을 갖는 비등방성(非等方性) 및 우수한 빛 흡수성을 갖는 탄소나노튜브의 특성을 응용해 가시광선 및 자외선 영역까지 편광이 가능하며, 전극, 액정 배향막, 대전 방지막의 다기능 특성을 가졌다.

연구 책임자인 이승희 교수는 "전단 흐름만을 이용해 제작된 탄소나노튜브 편광자는 대면적 크기의 전도성을 가진 편광자로서 자외선 영역도 편광이 가능해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기존 자외선 편광자를 대신해 액정의 광배향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고가 와이어 그리드 편광관 및 유기물 편광판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다기능성 편광판으로써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통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이 필름은 탄소나노튜브의 물질 방향에 따라 균일하지 않은 성질을 갖는 비등방성(非等方性) 및 우수한 빛 흡수성을 갖는 탄소나노튜브의 특성을 응용해 가시광선 및 자외선 영역까지 편광이 가능하며, 전극, 액정 배향막, 대전 방지막의 다기능 특성을 가졌다.

이들 특성을 가졌다. 전북대-KIST 공동 산학연 사업의 첫 성과물인 이 편광자는 탄소나노튜브의 이방성 빛의 흡수성 및 우수한 물질로 인해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편광 효율을 자랑하며 400°C까지 이 성능이 유지된다. 또한 편광자, 액정 배향막, 전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상용화된 유기 편광관보다 열에 강하고, 나노미터 두께 수준으로 제작이 가능해 차세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광배향용으로 사용되는 값비싼 와이어 그리드

이들 특성을 가졌다. 전북대-KIST 공동 산학연 사업의 첫 성과물인 이 편광자는 탄소나노튜브의 이방성 빛의 흡수성 및 우수한 물질로 인해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높은 편광 효율을 자랑하며 400°C까지 이 성능이 유지된다. 또한 편광자, 액정 배향막, 전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청개구리들의 꿈'

송광초 특수학급 학생들 내달 1~3일 작품전시회

송광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오는 12월 1~3일 3일간 전주교육문화회관 2층 공감전시실에서 '청개구리들의 꿈'이란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개구리들의 꿈'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송광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급 특색활동으로 미술 활동을 3년 동안 진행해 얻은 다양한 공동작품과 개인작품을 알리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자화상, 색종이 모자이크, 종이컵 크리스마스 트리, 동판화, 부조 등 다양한 주제와 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3명의 꼬마작가 홍민우, 홍유찬, 류승준은 아티스트의 꿈을 키우며 3년 동안 작품 전시회를 준비했다.

송광초 김영순 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장애아동들의 꿈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30 선정 시민설명회 및 토크콘서트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글로벌대학30 사업 세부 실행 계획에 따른 남원글로벌캠퍼스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 남원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북대, 남원시와 '글로벌30 선정 시민설명회' 공동 개최 남원글로벌캠퍼스 추진 계획 설명... 시민들과 소통도 가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공동으로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30 선정 시민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30 선정이 남원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소상공인연합회와 발전협의회 등 남원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 이용호 국회의원, 최경식 시장, 백기태 전북대 기획처장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서남내 폐교부지 재생사업은 전국 최초로 제안한 아이디어로 큰 주목을 받았다"며 "지역과 손 잡고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해 대학의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진행된 시민설명회에서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사업' 세부 실행 계획에 따른 남원 글로벌캠퍼스 추진 계획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남내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외국인 유학

생 인구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지역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남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최경식 시장은 "전북대의 눈부신 성과를 축하하고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우리 시민들과 나누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에는 △외국인 학생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K-컬처, K-커머스, K-과학기술 3개 학부를 신설해 학부당 100명씩 모집해 1,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릴레이 인문학 강연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이준영)은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 1층 로비 라운지에서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의 진설'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12월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인문학 강연 3회차로, 전북대 김병기 명예교수가 진행한다.

김 교수는 전북대 중어중문학과에 재직했으며, 저서로는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와 '축원·평화·오유' 등을 출간했다.

오는 28일까지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nu.ac.kr>)를 통해 선착순 50명의 사전 수강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강연 관련 도서가 제공된다. 당일 현장에서도 50명 추가 접수한다.

이준영 중앙도서관장은 "유익한 인문학 강연으로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서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문학 강연 관련 문외는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063-270-4404~5)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주 영토와 우주 개발 경쟁'

전북대 교육혁신처, 오태석 전 과기부 차관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교육혁신처(처장 김현경)가 오태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태석 전 차관은 지난 24일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에서 학생, 교직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 영토와 우주 개발 경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태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24일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오 전 차관은 달, 화성 탐사 등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간, 기업 간 우주개발 경쟁의 원인과 현황, 우주 영토 및 자원의 소유권, 우주 쓰레기 등 우주공간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특강을 통해 우주 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민간 우주기업 육성과 우주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위성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유망 분야를 설명, 학생들의 관심과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누리호)의 자체 개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우주개발 계획과 비전을 강조했다.

오태석 전 차관은 "이공계열 학생들 뿐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도 우리 과학기술에 큰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신설되는 우주항공청(KASA)을 비롯해 많은 연구기관이 있으니,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관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현경 교육혁신처장은 "미래에는 융복합 지식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된 분야별 전문 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저명인사의 특강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태석 전 차관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혁신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겨울철 에너지 절약 추진 앞장

도교육청, 하반기 에너지절약 추진위 열고 추진계획 마련

전북도교육청은 27일 하반기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열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보고 및 겨울철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8°C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으로는 △실내 가능한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 △실내 난방기 사용 금지 △적정 실내 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시행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등이 있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입산부, 장애인 등은 기관장 승인 후 적정 실내온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기전력 차단,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1~4층 계단 이용 등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상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겨울 평균 실내온도를

최신차 재무과장은 "하반기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각 부서별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겨울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생활속 에너지 절약에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인권센터, 도내 대학생 대상 인권현장 탐방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17~18일(1차)과 24~25일(2차) 두차례 전북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교육부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대학생들에게 인권 현장 탐방을 통한 체험형 인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화차당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김주열 열사 기념관과 동화농민혁명기념관 현장에서는 해설사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인권 현장 탐방은 전주대학교 재학생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학생이 화차당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 만인의 총, 김주열 열사 기념관, 숲정이성지, 정음 동화농민혁명기념공원 등을 방문해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전북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인권 현장들을 둘러봤다. /장은성 기자